



What Time Is It?

지금도 대체 어떤 시대인가

마이클 고헨 Michael Goheen

본 칼럼의 내용은 마이클 고헨(Michael Goheen) 교수가 캐나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에서

〈What Time Is It? Understanding the Religious Worldview Spirits of Our Age:

-Postmodernity, Economic Modernity, and Consumerism〉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내용 중 일부를 VIEW와 마이클 고헨 교수의 협조를 구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What Time is it?

브라이언 왈시(Brian Walsh)와 리처드 미들톤(J. Richard Middleton)은 모든 세계관은 다음의 4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우리가 평생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답하려면 가장 먼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악은 왜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

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면 어떻게 고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은 세계관 논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톰 라이트(N. T. Wright)는 세계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ダイナ믹하게 변한다면서 ‘What time is it?’이라는 질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 커다란 이야기의 어디쯤에 속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동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 어디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이야기 속 어디쯤에 있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를 만들어 가는 세계관적인 혹은 종교적인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서구 문화에 속했지만,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데 어째서 서양문화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 시작된 세계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서양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나쁜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spirit)은 무엇일까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가장 시급한 선교적 과제는 현대성(modernity)에 대한 사명이며, 이를 위해 지성이라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과정들의 이면을 샅샅이 조사하여 숨겨져 있는 신조(Credo)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조(Credo)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영어의 credo, confession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결혼, 경제, 교육 등 문화적인 현상들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 속에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는(shaping) 숨겨진 신조(Credo), 숨겨진 세계관, 숨겨진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뉴비긴은 눈에 보이는 문화적인 현상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숨겨진 신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적인 힘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입니다. 포스트모더니티는 점점 확장되어 계몽주의의 믿음 즉, 모더니티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의 세계화 문제입니다. 계몽주의 정신이 오늘날의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 세계화가 되었군요. 사실 현대화와 세계화는 부딪힙니다. 현대화는 경제적인 현대화에 대해서는 'YES'라고 하면서, 포스트모더니티에 대해서는 'NO'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소비주의입니다. 상품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 종교입니다.

첫 번째 현대 종교,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첫 번째는 모더니즘에 도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기존의 경제적인 모더니티를 바꾸고 있죠.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은 오늘날의 소비주의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계몽주의는 낙관적인 미래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인본주의의 실패와 몰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을 줄 것이라던 장밋빛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포스트모더니즘이 발현된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 학자들은 모더니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것은 환경 파괴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고 그 차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10억명이 가난한 10억명보다 30배 더 잘 산다고 하던 것이 지금은 90배로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미래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에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대단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편리보다 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덕분에 진보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전멸할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더니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 포스트모던 심리학자가 자신의 저서에 모더니즘이 초래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3~40년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body-image(신체에 대한 관심)'를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의 기술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완전한 이미지를 제시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미지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는 그 문제가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장애도 생겼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계몽주의로 보고, 더 이상 모더니즘과 계몽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던 심리학자인 데이빗 하비(David Harvey)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는 죽음의 수용소와 암살단

들, 군국주의, 양차 세계대전,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전멸의 위협을 경험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으로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가 철저히 무너졌다. 계몽주의, 즉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좋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18세기의 낙관론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 20세기의 더 큰 악몽은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스스로를 대적하여 인간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전 우주적 억압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들은 계몽주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리오타르(J. P. Lyotard)는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면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계몽주의가 약속했던 진보에 대한 신념, 신앙을, 과학과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생길뿐 해결책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진보'라는 거대담론, 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예 진리 자체가 없다고 보거나 이성 외에 감정과 같은 다른 것을 통해 혹은 그 커뮤니티의 합의를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독점진리를 의심합니다. “진리에는 다양한 버전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지향합니다. 기독교, 인본주의, 불교 등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권위에 대해 반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성, 계급, 종교, 문화와 가난, 그리고 소외, 환경에 대한 부당함(injustice)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관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에 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모더니즘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 모더니즘의 전제였는데 합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적 측면뿐 아니라 비합리적 측면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곧 과학적인 진리조차도 다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옹호했던 이유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 지식이 형성되기(shaping) 때문에 각자의 세계관(view)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주관적인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며, 복음의 진리는 어떤 과학적 진리보다도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양성—다원성(plurality)이 아닌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포용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입니다. 모더니즘은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획일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다양성, 다면성을 존중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바로보기

반면에 비판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더니즘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원성과 다양성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원주의는 진리에 대한 차이 자체를 환영합니다. 완전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상대주의, 이것이 위험한 우상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을 평가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긍정해야 할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질 가능성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아주 나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포스트모던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더니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성공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면도 있죠. 성공적인 면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사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제 30대 시절, 고향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매우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모더니즘을 거치며 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고 있죠. 확실히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사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더니즘 하에서 전 세계의 사법제도가 만들어졌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에 진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학창시절은 파워포인트가 아닌 OHP(시청각 교육용 투영기) 시대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혜택이죠. 약은 또 어떤가요? 현대 의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현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음영의 한 면입니다.

두 번째 현대 종교, 경제의 세계화

경제 성장은 20~21세기의 매우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쉬(Christopher Lasch)는 『진보의 이론』에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도덕적(moral)이고 더 윤리적(ethical)이라 생각하지만 세계1차대전, 2차대전 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더 정의로운 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의가 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 세계는 상대주의로 편만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실패했는데 한 가지만 성공했다고, 그것은 바로 기술적 진보와 경제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의 내적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곳은 아담 스미스와 그 전임자들이다.” 21세기 진보의 근원을 찾으려면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백 년 전, 그는 이미 기술이 경제적 진보의 추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은 이 진보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라쉬는 진보라는 개념이 욕구의 무한성과 편리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꾸준히 상승하여 대중이 풍요의 문화에 쉽게 편승되리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어떤 비판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보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소수가 경제적인 부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고 쉽게 만드는지 묻는다면 예든 아니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더니즘이 주는 혜택에 ‘yes’ 라고 응답한 겁니다. 지금 세대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안정적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세계관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모든 진보는 그렇지 않은데 단 하나, 물질적 풍요에 있어서만은 진보라는 개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결혼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결혼의 진보가 아니죠. 거기에
는 진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보의 개념에 치명타를 날렸고 진
보는 K.O패 당해 무너졌습니다. 단 한 가지 진보만 제
외하고요. 그 한 가지 진보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혹
독한 비판을 모두 견뎌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
을 통한 경제적 진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강력한 공
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그 진보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모더니즘
의 세계관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도시를 지배하고 있
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개념인 'unify(통합하다)'를
복시다. 경제 문제가 강력하게 세계 전체를 통합하여
묶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상태를 '비대칭적인 성장'
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쪽의 부가 다른 쪽의 가난으로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정의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이 전 세계의
1/2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만들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톰 라이트(N. T. Wright)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이 점이 바로 기
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 했습니다.

약 20년 전, 레슬리 뉴비긴과 함께 앨라배마(Alabama)
주의 버밍햄(Birmingham)에 있는 흑인해방운동을 기
념하는 박물관에 갔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들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보면 공포감에 전율이 느
껴집니다. 학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흑인 노예들을 학
대한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흑인 노예들을 저렇게 대접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했
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이지만, 당시의 악
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악인 줄 몰랐
겠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00년 뒤에 후손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그 당시 사람
들이 저질렀구나." 하고 말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
릅니다. 사실 그 당시 노예를 착취했던 크리스천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눈이 가려져 있을까요.
100년 후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
을까' 하고 말할 만한 것들은 없는 걸까요?

뉴비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묻게 될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세계화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정
의가 심화되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
었는가." 라고 말이죠.

신약학자인 리차드 바캄(Richard Bauckham)은 “오늘날 우리를 형성(shaping)하고 있는 세계관은 포스트모던 세계관이 아니라 경제적인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담론이다.”, “세계의 거대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끝이 아니다. 점점 더 증가하는 경제적인 세계화다. ... 이것은 새로운 제국주의다. ... 이데올로기(세계관)로서 세계화란 진보의 옛 개념에서 나왔지만 진보를 경제성장으로만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능력이나 자율성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정의, 교육 등 사회구조에 있어서도 동일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진보와 성장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경제적인 성장으로만 환원시키는 것, 이것이 경제적인 목표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10대일 때보다 훨씬 더 경제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의 삶을 분별해 보기 바랍니다.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제공하는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는 이상숭배를 분별하는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논리에 물든 세계화, 바로보기

하지만 우리는 세계관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비판적 안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랜 친구인 신국원 교수와 서울의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곳을 보고 있더군요. 기술의 편리함에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기술과 경제문제로 환원시킨다면 삶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비판의 안목, 양면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rights)입니다. 인권은 서구사회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과학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까? (저는 특별히 전자레인을 만든 기술에 감사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상대적인 자유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한 점들도 있습니다. 경제문제로 인한 이상숭배, 기술로 인한 환경 파괴, 심화되는 빈부격차 등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상숭배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생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 기술, 경제, 이런 것들은 큰 세계관의 한 부분입니다. 지나친 강조가 이상숭배가 되어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다른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지는 않은가. 그것이 다른 전통적인 가치들을 파괴하지는 않은가. 그것이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세계화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문화적인 것을 파괴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 바캄

세 번째 현대 종교, 소비주의 Consumer Society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적 정신 (spirit)인 소비주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쪽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잃어버린 삶의 의미의 빈자리에 상품과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집어넣은 것이 소비주의입니다. 그것을 위한 물품과 경험들은 바로 세계화에 의해 채워질 수 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비주의야말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적인, 종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마일스(Steven Miles)도 “소비주의는 현대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 버렸다. 또한 종교와의 유사점도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소비주의는 틀림없는 20세기 후반의 종교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비주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문화 속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David F. Wells)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구조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물건 이야기(The story of stuff, 2007)》는 도대체 소비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창의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답하고 있지요. 현대의 소비주의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하루 하나 생산하던 것을 백 개, 천 개, 자동화 되면서 소비와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신발을 두 켤레 가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발을 몇 켤레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만들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지나치게 생산을 많이 하는 우리 경제는 소비를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비, 즉 상품을 구입



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의 영적 만족감, 자아 충족감을 찾도록 사회가 요구한다는 것이죠.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파는 것이죠. 이것을 사기만 해도 당신은 아주 괜찮은 존재가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물건이 제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판타지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하고, 소모하고, 닳게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폐기할 물건들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차를 타고 살도록, 그것을 점점 더 비싸게 소비하게끔 해야 한다.” 이것은 마케팅 저널의 한 경제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비를 삶의 방식으로,
패턴으로 생각하게 만드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소비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반복적인 메시지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소비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물건을 못 쓰게 되었는데 다 닳아서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못 쓰게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부터 얼마동안만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 고장 나면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꿔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고장이 나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소비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로 하여금 ‘아, 이거 못 쓰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입고 있는 옷인데 별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신발이 멀쩡한데도 유행에 뒤쳐졌다 하며 내버리고 새로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새로운 것을 계속 주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델의 핸드폰이 나오면 상점 앞에 줄을 서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사실 그들 중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핸드폰이 있음에도 신상품을 산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광고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진 물건보다 더 새로운 것이 당신에게 어울린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북미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천 번 정도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것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

고가 그것을 사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유혹하거든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하도록 만듭니다. 새로운 것, 더 빠른 것을 사도록 만들지요. 불만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어 새로운 것을 사면 만족될 것처럼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사회, 바로보기

로마서 1장 18-32절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우상숭배 문화와 인간의 죄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비판합니다. 삶 속에 다른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두셨다(God gave them over), 내버려두셨다, 내버려두셨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려 하고, 섬기려 하고, 즐기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소비, 소비자주의(consumerism)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전통에서 어떤 말에 ‘ism’을 붙이면, 일종의 우상숭배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소비자(consumer)에 ‘ism’을 붙인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 내에서 선택한 것인 ‘consumer’가 우상숭배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소비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소모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우리가 즐기고 사용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여행을 다녀올 때 가끔 아이들의 선물을 사옵니다.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감사해요, 아빠.” 대신 “에이, 그거 괜히 사왔어요.” 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문제는 이 소비자주의(consumerism)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소비지향적인 우상숭배의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비는 상품만이 아니라 경험도 포함합니다. 기성세대는 상품 소비에 익숙하지만, 젊을수록 여행이나 레저 등 경험 소비에 익숙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소비가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한 존재가 되는 것, 문화의 중심에 경제적인 패러다임이나 소비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선함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 봅시다. '거룩한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주심을 감사하고 둘째,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자인 톰(Tom Beaudoin)은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반소비적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써, 자원이 부족할 때를 생각하고, 즐기면서도 주변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소비주의는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제인 콜리어(Jane Collier)는 “경제주의의 문화는 삶 전체를 망라하고 행복과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허상을 가진 유사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우상이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소비주의 안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비주의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도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느라, 혹은 기타 비용의 발생으로 시간과 물질이 점점 부족해지고 염려도 더 커집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심리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해를 끼칩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 소비주의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소비주의 자체를 불경건한 성품에서 말미암았으며,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더 탐욕적이 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시하게 여기고, 피상적이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소비주의 자체가 경건한 성품을 파괴한다고 말이지요. 소비주의 세계관은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조차도 길들입니다. 존 카바노프(John Kavanaugh)는 『소비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원제: Following Christ in a Consumer Society)에서 소비주의 사회는 사람들을 형성시키는 일종의 시스템인데, 그것은 먼저 우리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카바노프는 특별히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국가나 문화의 복음에 더 헌신하여 기독교 신앙을 빈약하게 하고 길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스트모더니즘, 세계화, 소비의 복음보다 못하겠습니까? 복음에 기초한 인간의 삶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강력한 세계관 이야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과 복음을 알고 우리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을 갖춰 문화 속 충돌과 긴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통을 기쁘게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이상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공동체적 삶을 통해 이 사회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을 깨울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이 강력한 세계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흥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세상에서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절제하는 공동체, 폭력적이고 거칠어져만 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을 지닌 공동체, 만족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아는 공동체,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실현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책임성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에서 이타적으로 남들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 겉데기만 화려하게 꾸미는 세상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그런 성품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많은 것을 나누고도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공동체, 온통 경제적 혹은 생태학적 부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사모하고 지향하며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고헨(MICHAEL W. GOHEEN)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있는 트리니티웨스턴 대학교의 종교학부 교수로 세계관과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뉴웨스트민스터 개혁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섬기고 있다. 알버트 윌터스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중요한 안내서로 평가받는 「창조 타락 구속」을,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함께 「성경은 드라마다」(이상 IVP)를 저술했다.

※ 마이클 고헨의 강의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VIEW** <http://www.view.edu/>